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3** 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수시모집 |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I

| 정시모집 |

기회균형특별전형 III



미래의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여러분의 서울대의 생활을 위한 조언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학점 잘 받으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 지식뿐 아니라 태도, 관점, 그리고 취향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대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가치관을 세우고, 창창한 인생을 밀고 나갈 힘이 될 지적, 감성적, 문화적 자양분을 축적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을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각도로 세상을 관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 말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때로는 발칙한 상상도 해보고 무모한 도전도 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질문을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 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셋째, 경계를 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문필가인 찰스 스노는 1959년 케임브리지대 강연에서 문과와 이과를 도저히 섞이지 않는 ‘두 문화’라고 지칭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두 문화’의 간극이 여전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아니 변해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게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융합주제강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율연구를 통해 학부생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자신만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와 제도의 경계를 허무는 첫걸음을 이곳 서울대에서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나가지 말고 주위를 살피고 뒤를 돌아보면서 함께 손잡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인류 공통의 선한 가치들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며, 승자의 환호보다 패자의 눈물을 보살피는 가슴 따뜻한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폭 넓은 시야와 유연한 생각으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장 오 세 정



## I.

###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_ p.08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_ p.09

## II.

###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_ p.11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_ p.11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_ p.12

## III.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방법

- 서류평가 안내 \_ p.14
- 면접 안내 \_ p.21

## IV.

###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_ p.29
-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_ p.35
-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_ p.37

## V.

###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_ p.42
-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_ p.51
-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_ p.57
- [참고]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2024학년도) \_ p.60

## VI.

###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_ p.63

-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_ p.64
  - 아로리 사용 설명서 \_ p.67





# I.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지향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업능력과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나 ‘진취성’이란 단어가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워온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모집	정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li> <li>·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li> <li>·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 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li> <li>·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li> <li>·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 II)</li> <li>·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 III)</li> </ul>

위 전형 가운데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I)과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 III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각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형 명칭	전형 소개	전형 요소*
수시	지역균형전형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기회균형 특별전형 I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정시	기회균형 특별전형 III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평가 또는 적성·인성면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체계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올해 모집인원의 약 6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023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변화했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型的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앞서 확인했던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교육목표에 맞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자원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학생들만 선택해 평가에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 번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 입학전형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대학이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서류평가 안내

##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 I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1차 선발하여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약 110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

### 학업능력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주어진 여건에서 교과 및 학업관련  
활동의 성취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수행능력 등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 학업태도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탐색의지 등의  
학업 소양을 평가합니다.

### 학업 외 소양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학교생활을 통해 드러난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 학업능력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능력입니다.**

학생의 학업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교내대회,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학업 관련 활동), 학업 관련 탐구활동,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 [ 평가 기준 ]

- ✔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 ✔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 ✔ 의미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이었는가?
- ✔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 ✔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 | 교과학습 발달상황 |

교과학습 발달상황에서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교과성취도는 지원자의 학업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3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20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강자 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확하게 학업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이수단위	등급	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	1	000	3	1	300	98	71.2	15.4
2	2	000	2	3	20	94	89.2	4.6
3	1	000	2	A	-	-	-	-

또한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변화와 성장 정도를 평가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토론, 발표, 실험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 Ⅰ 교내수상 Ⅰ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거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경시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마다 상이하게 시상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수상의 등위가 아니라 참가 대상, 인원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 안에서 수상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학교	수상명	등급(위)	참가 대상
A	OOO	우수상(5위)	2학년 중 참가자(52명)
B	OOO	우수상(2위)	전 학년 대상(536명)

### Ⅰ 창의적 체험활동 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 탐구 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이 가능한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탐구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탐구활동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 Ⅰ 자기소개서 Ⅰ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 지표와 교내대회 수상내역, 동아리활동 등이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는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천문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 활동 시간과 활동 내용 등 결과적인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천문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동아리 참여 전과 후의 자신의 학업능력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기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은 이 부분에서 학생의 호기심과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 탐색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업 관련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태도를 보여 왔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평가 기준 ]

- ✓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 ✓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 ✓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 ✓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 ✓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 ● 학업 외 소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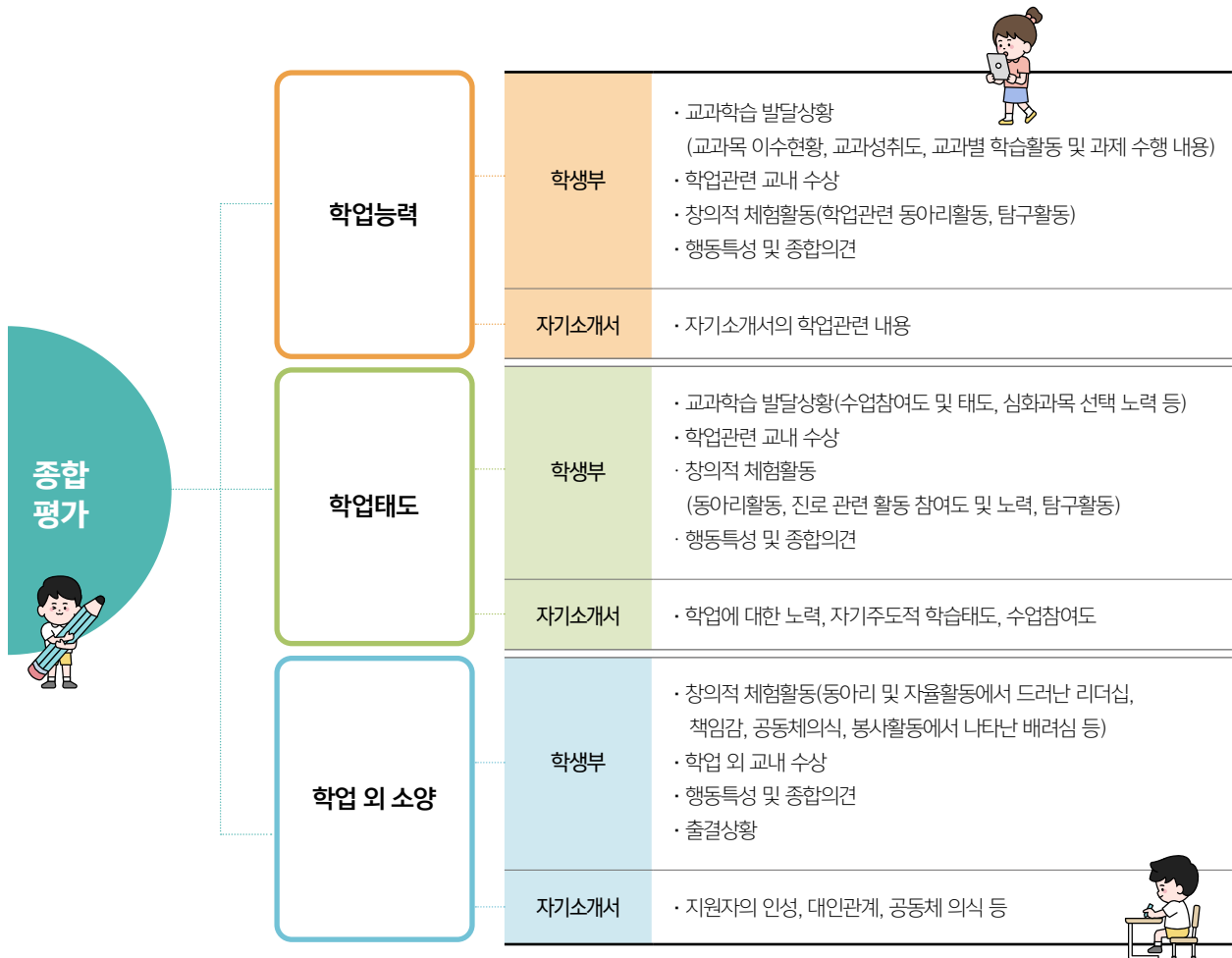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이외의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 활동의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하며, 봉사활동 역시 봉사활동의 양이 아닌 활동 내용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 평가 기준 ]

- ✓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 ✓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 ✓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 |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크게 학생의 학업능력과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때, 한 종류의 서류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업 참여도와 과목 선택 내역, 교내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 제출 서류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서류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내 수상,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은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를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협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는 2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110여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총 4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은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해당 모집단위의 전년도 선발 결과 분석 및 전년도 지원 사례 분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평가에서는 전임입학사정관 두 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이후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지원자들의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그 결과가 이전 단계 평가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Step 0**  
**준비단계**

전임입학사정관은 평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매년 많은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입학사정관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데이터 분석, 교사 간담회, 교육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우수성 지표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Step 1**  
**전임입학사정관  
평가**

**1차 평가**

전임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 의견, 면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2차 평가**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다른 전임입학사정관이 1차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Step 2**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 1단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 2차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대학입학전형운영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ep 3**  
**위촉입학사정관  
평가**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해당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인지 평가합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2인 이상의 위촉입학사정관이 평가하며, 1, 2차 평가를 담당한 전임입학사정관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Step 4**  
**최종 평가**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3단계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면접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면접,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 | 서류 기반 면접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 I 의 면접 대상자와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 III 지원자 모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평가방법	면접 시간	평가내용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10분 내외 (지역균형전형 의과대학 평가시간 상이)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

###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서류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대기실	이동	면접실
수험생 확인 및 안내	..... 	서류 기반 면접 진행

##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제시문 활용 면접 |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사용됩니다.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고 모집단위별 30분/4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별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제시하였으며, 각 모집단위별로 안내된 분야의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공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면접 시간	평가내용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15분 내외 / 답변준비시간 별도 부여(30분 또는 45분) (미술대학, 음악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평가시간 상이)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

##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순서에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여 제공된 제시문의 답변을 준비합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면접실로 이동하여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대기실	이동	면접 준비실	이동	면접실
수험생 확인 및 안내	..... 	제시문 제공 및 답변 준비	..... 	제시문 기반 면접 진행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집 단위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li> <li>·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li> </ul>
------	---

인문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논리력 등이며 전반적인 학업소양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가)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므로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과 달리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노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을 기획할 때는 대중의 미적 만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 취향을 벗어나 아름답기는커녕 불쾌감만 주는 작품에 공공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그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무난하고 의례적인 작품만 선정한다거나, 작품의 선택을 주민투표에 맡긴다면 예술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공공미술은 대중의 취향을 교육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전달할 기회다. 어떤 작품이 그럴 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된 전문가들이다.

(다) 1981년 리처드 세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길이 36미터의 녹슨 강철판인 <기울어진 호>를 맨해튼의 작은 광장에 설치했다. 시민의 동선을 변경하여 광장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조각처럼 관조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품에 반응하는 관람객의 행동과 이로 인해 새롭게 규정되는 공간까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습에 익숙한 눈에 작품은 건축 폐기물에 불과했다. 충격과 불편함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논란 끝에 작품은 89년에 철거되었다.

1982년 유사한 양식의 조형물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인근에 세워졌다. 공모전에서 마야 린의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이 선정된 것이다. 길이 150미터의 검은 화강암 벽은 중간이 한 번 꺾여 있을 뿐 단순했다. 작가는 기존의 전쟁기념물과 달리 전쟁이 아닌 사람을 기리겠다고 생각하여, 베트남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을 사망 연도순으로 벽에 새겨 넣었다. 전혀 영웅적이지 않다는 일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조형물은 몇 년 만에 워싱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양분된 미국은 오랫동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대립을 겪었고, 그 상처는 깊었다. 작품에서 린은 이 논쟁적인 사안에 화해나 종결을 제안하지 않았다. 참전 용사부터 반전 평화주의자까지, 입장이 다른 모든 관람객이 이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반추할 수 있었다.

**[문제 1]** (다)의 사례들을 (가)와 (나)에 비추어 평가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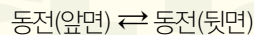
**[문제 2]** (가)와 (나)의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십시오.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의 경우 화학 관련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과학 교과 중 화학Ⅱ 수준까지의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답변 준비시간 45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화학]

앞면과 뒷면을 구분할 수 있는 동전이 640개 있다. 모든 동전을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큰 상자 안에 넣었다. 상자의 뚜껑을 덮고 충분한 시간 동안 흔들면,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와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가 같아진다고 하자.

※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을 반응물,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을 생성물로 간주하면, 이를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반응물의 농도는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로, 생성물의 농도는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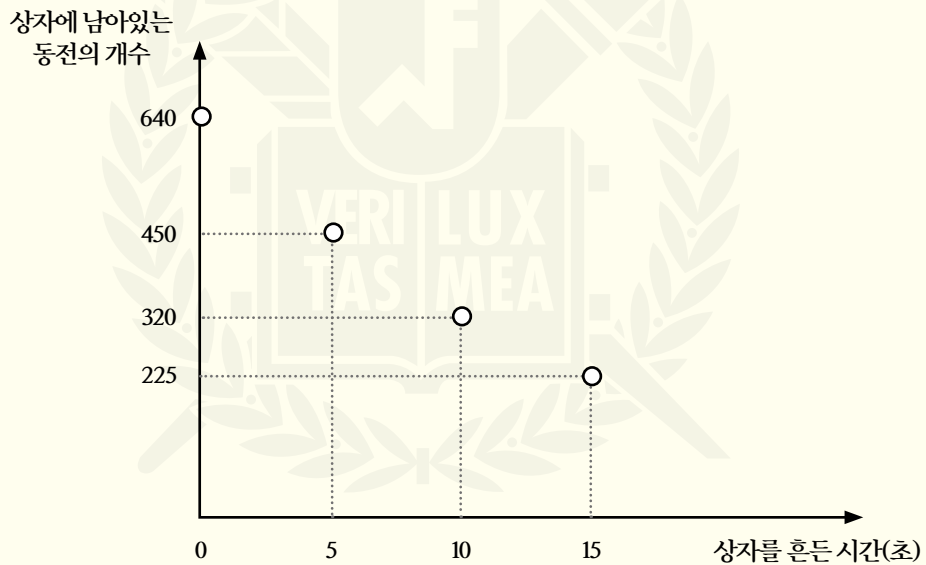
※ 실제로 이 실험을 하면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와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가 실험마다 조금씩 다르게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상자를 흔들면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와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가 항상 같아진다고 가정한다.

**[문제 1]** 충분한 시간 동안 상자를 흔들고 있을 때, 각 동전의 앞·뒷면이 뒤집히는 과정을 동적 평형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또한, 이 반응의 평형 상수  $K$ 와 동전의 앞면이 모두 위를 향한 초기 상태의 반응 지수  $Q$ 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 초기에 반응의 진행 방향을 설명하시오.

**[문제 2]** 640개의 동전이 평형에 도달하여 앞면 또는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 640개를 상자에 추가하고 계속해서 동전이 든 상자를 흔들었다. 아래 각 상황에서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르샤틀리에 원리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 ① 동전을 추가하기 직전
- ② 새로 동전을 추가한 직후
- ③ 동전을 추가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흔들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문제 3]** 동전 앞면에 끈끈한 물질을 발라 동전이 한 번 뒤집히면(즉, 동전 뒷면이 위를 향하고 앞면이 상자 바닥에 붙으면) 다시 뒤집힐 수 없게 만들었다. 동전의 앞면이 모두 위를 향한 초기 상태에서 상자 뚜껑을 덮고 흔들면서 5초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 바닥에 붙은(즉,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을 모두 떼어 상자 밖으로 꺼냈다. 상자를 흔든 시간에 따라 상자에 남아있는 동전의 개수를 기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반응의 반응 차수를 구하고, 상자에 동전이 5개 남을 때까지 상자를 흔들어야 하는 시간을 구하시오. (단, 동전이 서로 붙거나, 상자의 바닥이 아닌 다른 면에는 붙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문제 4]** 동전이 뒤집히기 위해서는 동전이 선 상태를 거쳐 가야 한다. 동전이 뒤집히는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그래프로 간단히 나타내고, 이와 연관 지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하시오.

공과대학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

공과대학의 경우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이 주어져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됩니다. 답변 준비시간 45분 내외의 준비 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 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03

### 2021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수학(자연)]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을  $X$ 라고 하고, 음이 아닌 실수들의 집합을  $Y$ 라고 하자.  
두 함수  $f: X \rightarrow Y, g: Y \rightarrow X$ 에 대해 아래 조건을 생각하자.

(조건 1)  $n \in X$ 와  $y \in Y$ 에 대하여  $f(n) \leq y \Leftrightarrow n \leq g(y)$ 이다.

**[문제 1]** 함수  $f: X \rightarrow Y, g: Y \rightarrow X$ 가 (조건 1)을 만족할 때, 모든  $n \in X$ 에 대하여  $n \leq (g \circ f)(n)$ 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문제 2]** 양수  $k$ 에 대해  $f(n) = n^k$ 이라고 할 때, (조건 1)과 다음 (조건 2)를 만족하는 함수  $g: Y \rightarrow X$ 의 예를 찾으시오.

(조건 2)  $y_1 \leq y_2$ 이면  $g(y_1) \leq g(y_2)$ 이다.

**[문제 3]** 문제 2에서 찾은 함수  $g: Y \rightarrow X$ 가 단 하나 존재함을 보이시오.

경영대학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

경영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답변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 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b>자유전공학부</b> (3가지 유형 중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인문),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li> <li>·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li> <li>·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li> </ul>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 3가지 유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 제시문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유형은 위와 같으며, 평가내용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 모집단위별로 평가되는 분야와 과목은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함께 안내해 드리지 못했던 경영대학 및 자유전공학부를 포함한 전체 모집단위의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와 웹진 '아로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소양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소 깊이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면접 및 구술고사 준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수한 학업소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과학 분야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거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 연습을 해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수업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 학습을 해 보는 경험,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제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활동 등도 각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본인의 학업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 IV.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미래의 서울대 학생 여러분, 그럼 학생부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3년은 내 인생에서 없는 기간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 내가 만드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활동, 어떤 공부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 도전하는 학생

-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 ❖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가세요.

내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대학생살을 넘어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의 멋진 미래입니다.

### ❖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유형에 따라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역사가 좋은데... 동아시아사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동아시아사 희망자가 겨우 16명뿐이라고?  
윤리와 사상은 8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이러한 지식공동체의 일원인 서울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습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합시다.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지적 성장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과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다면 선생님들이 주시는 배움의 기회를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도전의 기회,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기를 기회, 자신의 진짜 실력을 쌓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과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그 기록을 꼼꼼히 살펴 여러분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움의 과정은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 교과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 서울대학교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서적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활동,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도 있습니다. 교내 대회 참여 종류나 수상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상 기회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땀과 열정을 나누다보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활동, 주제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한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해 펼쳐진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봅시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해 온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 바른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져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서울대 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춰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학업활동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학업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조금 더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협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의 경우도 가까운 친구,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실천해 봅시다. 처음부터 진심에서 우러나 실천한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의미 없이 채워진 수백 시간의 봉사실적보다 여러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진심을 다한 활동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자질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길러온 다양한 능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있는 학교생활에 주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

## 생각하는 수업, 배움의 장

### ❖ 교실 안에서 학생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업능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능력, 적성에 따라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학업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 수업의 충실한 학습활동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탐구활동, 심화학습활동을 학교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지도와 후원에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도 큰 힘과 자극을 얻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적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학교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깊이 있는 지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능력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학습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활동 하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한층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 ❖ 학업 외 활동도 지원해 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지닌 학생들과 서로 어우러질 때 학생들은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리더십, 사회성을 다지는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재능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학교 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생활태도, 올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기대합니다.

## 학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 ❖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주세요

같은 교과목의 수업이라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수업 내용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 저마다의 특성과 성장의 모습은 다르게 빛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꼼꼼히 읽으며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은 어떤 능력을, 어떤 소양을 키우고 발휘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의 학습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과학습 내용에 대한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주세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를 비롯하여,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기록을 담아주세요. 학습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과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과목 수업에 임하는 자세, 수업에서 보인 적극성, 학업소양과 특성 등 선생님들이 보는 그대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의 관심, 학생의 고민

### ❖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 가치관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노력의 질과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충실히 노력해 간다면 진로가 변한다 해도 그동안 쌓아온 역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곳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을 의지하며 목표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만 담당하고, 진학 담당 선생님들만 진학에 관심을 갖는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교과 담당 교사, 학급 담임 교사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항상 학생의 관심과 특성을 공유하여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진학 상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 학원이나 사설 컨설팅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와 직접 소통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 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담임 선생님과 진학 지도 선생님에게 진학 관련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 진학 정보실이 마련되어 언제든지 학생들이 찾을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제출서류를 읽고, 관련 사항을 서로 비교해보며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낼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관련하여 기울인 노력(의미 있는 학습경험과 교내활동 중심)
-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과 그 이유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평가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더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본인의 목소리를 더하는 보조적인 역할의 서류입니다. 자기소개서의 특성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생각과 강점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여주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 모습이 담겨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만의 모습을 나만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 ‘나’,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기간을 돌이켜 보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내가 노력했던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나의 생각을 담아보세요.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해 봅시다.

#### ❖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단순히 나열하여 대회명, 수상 일시, 수상 등급 등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특별히 노력한 과정이나, 역량을 쌓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를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 ❖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주세요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것이 곧 감정적인 내용을 서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만의 생각과 문체로 개성을 나타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침묵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 ❖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주세요

자기소개서는 남과는 다른 나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문구로는 입학사정관에게 ‘나’를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반장 역할을 잘 해냈다.”,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경력보다는 임원 활동의 계기나 동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경험, 이를 통해 향후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독서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에도 ‘자기 생각’을 담아주세요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은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안의 또 다른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라서 책의 줄거리 요약이나 내용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던 책을 선정하여 그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선정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하여 경험과 생각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것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주세요

서울대학교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여준 학습 노력, 학업수행 과정, 열의, 학업소양, 적성, 학습 방식 및 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성적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이외에 수업시간에 순간순간 드러날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울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인 개별적인 노력을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업 결과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학업 특징을 보여 왔는지, 특별한 학업소양을 어떤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보여 왔으며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장황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보인 특징적인 학업소양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선별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활동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은 ‘나의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는 역량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초석이 되며 그 배움의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나의 진로 목표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은 또 무엇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서울대학교에서 치열하게 공부한 여러분의 선배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곳에 실린 선배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밑거름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을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옮겨진 선배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여건에 맞게 선배들의 조언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도전해 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 | 인문대학 철학과 P |

#### 모든 교과와 관련이 있지만 어떤 교과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학문답게 모든 교과와 관련이 있지만 어떤 교과의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철학은 동양철학전공과 서양철학전공으로 나뉘고, 동양철학전공은 크게 불교철학과 동아시아철학으로 나뉘며 서양철학은 대륙철학과 영미분석철학으로 나뉩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이러한 각 분야에 개설된 여러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 동양철학전공과 서양철학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관련 교과는 세부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철학은 물론 인문대학의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일 것입니다. 특히 철학에서는 밀도 있는 글을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국어에서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특히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므로 교과서의 지문들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교과서나 참고 교재에는 질 좋은 지문들이 많으니 꼼꼼히 읽으며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 찾아보고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접하는 교과서, 교재는 물론 자신이 탐독하는 책의 지문을 되풀이해 보면서 글의 구조와 흐름이 어떤지,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보면 전반적인 독해력 향상에도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철학과에서는 영어로 된 논문이나 책을 읽을 일이 아주 많습니다. 대학원 진학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학부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대부분 독해 관련 역량입니다. 또, 시험 준비를 위해 단어를 외우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공부는 시험 이후에도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철학 공부를 위해서 익히는 독일어, 프랑스어 등 영어와 가까운 제2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영어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철학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교과가 수학입니다. 철학의 기본이 어떤 주장을 논증하는 것인데 그러한 논증의 구조를 국어나 영어보다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수학이죠. 하지만 수학을 잘해야 철학을 잘한다거나 철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는 등의 연관 관계는 딱히 없으니 혹시나 수학에 흥미가 없더라도 걱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수학에 나오는 증명 과정을 따라가며 이해하고, 간단한 증명을 연습하는 건 철학 공부의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특히 언어적 분석이나 논리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분석철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철학전공의 기초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동양윤리 부분과 상당히 겹칩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동양철학전공에서는 불교철학을 비중 있게 다루고, 동아시아 철학에서 성리학이나 제자백가 철학 등을 다루는데, 관심이 있다면 <윤리와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양철학전공은 고등학교 교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리학, 사회철학 등의 실천철학은 **사회 교과**에 편성된 과목들과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윤리학은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와 겹치는 내용이 많고, 사회정치철학은 <정치와 법>, <사회·문화>와 같은 **사회 교과**에 편성된 과목과 관련이 많습니다. 만약 사람과 사회에 관심이 많고, 철학적 사고에도 관심이 있다면 사회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천철학을 공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철학전공에 도움이 될 만한 제2외국어로는 주로 <독일어>나 <프랑스어>입니다. 제2외국어를 선택하여 공부할 때 참고해주세요.

## |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K |

### 폭넓게 공부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을 전공으로 고고미술사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주전공인 중어중문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좋을 교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다른 대학교에 개설된 중국어문학 분야 학과들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전**”, 즉 **중국 문학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중어중문학과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어학과 중국 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문학의 비중이 더 큼**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현대 중국어로 쓰인 문학작품보다 **한문으로 쓰인 고전 문학**을 주로 다룹니다. 따라서 저는 중어중문학과 입학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배우는 <한문 I>**을 선택하여 공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한문 I>에서 다루는 내용 수준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작품 분석, 해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의 <한문 II>**까지도 공부할 수 있겠죠. 모든 학문에 해당하는 말이겠지만 공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문 I>만 제대로 공부해도 대학교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 언어 수업이 열립니다. 한문도 ‘초급한문1’, ‘초급한문2’, ‘중급한문’과 같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에 와서 보충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한자’를 익히는 공부** 역시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한문’은 한자로 쓰인 문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휘를 거의 모르는 상태라면 문장 구조를 아무리 잘 알아도 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는 것은 한문 공부의 기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한문 I>에서 다루는 수준으로 한자를 익혀도 대학에 왔을 때 웬만한 한문 글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고전 작품을 다루기 때문에 평상시 잘 안 쓰이는 어려운 한자도 나오지만 그럴 때는 사전을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한자를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중어중문학과에서 고전문학을 주로 다루지만 ‘고급중국어’, ‘중국어학개론’ 등 어학 분야 교과목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미리 어학 수업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교과목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중국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반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중학교 때 배운 <생활 국어>를 중국어로 배우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수업이 중국어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중국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비단 중어중문학과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서어서문학과나 영어를 공부하는 영어영문학과에서도 어학 수업을 수강한다면 스페인어로, 영어로 <생활 국어>의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말 문법을 배우는 교과목이 지금의 <언어와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목을 공부하면 대학교에서 어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왜 중국어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문계열 학과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문계열 학과로 진학하기 위해 해당 외국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중어중문학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면접 때 학생들이 얼마나 중국 문화와 문학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는지 그리고 문학작품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십니다. 반면 중국어 실력은 부가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다. 제 주위에도 고교 시절 중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고 현재 중어중문학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중국어를 배워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뒤처지거나 늦지 않습니다.**

## | 인문대학 국사학과 K |

###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보세요

앞서 철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중요한 공부가 폭넓은 과목에 걸쳐 있는 것처럼 **국사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 전반에서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깊이 있게 공부해야 교과목 중 제일 먼저 <한국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는 공통 과목인 만큼 비교적 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한국사>가 대학에서의 학문 공부에는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공부할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민 교육의 일환이며,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 외에 어떤 과목이 국사학 전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동아시아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막연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 속에서 조망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선택하여 공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모교에서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개설되지 않았기에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말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통해 얻은, 특히나 <동아시아사> 공부를 통해 얻은 이점은 제 막연한 예상보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국사학과 <동아시아사>의 '케미'가 정말 괜찮았거든요. 애초에 <동아시아사>가 사회 교과에 새롭게 추가된 이유가 하나의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과목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세계사>는 국사학과와의 결합 속에서 동아시아사 과목보다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동아시아사보다 깊이가 덜한 것이 우선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유기적인 연결 또한 현재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기에는 미진한 듯합니다. 깊이가 덜하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확실히 국사학 전공생으로서 **외국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생길 때 도움이 되는 했습니다.** 고대사·중세사가 아닌 근현대사에서는 오히려 세계사를 알아야 더 도움이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제 모든 조언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국사학 공부의 지향점 - 저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 따로 존재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그 과정에 필요한 사회 교과와 다른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르게 여러분

들은 ‘경제학 이론을 한국사에서 활용하고 싶다.’, ‘한국의 철학사 연구를 해보고 싶다.’, ‘지리학을 활용한 한국사 연구를 해보고 싶다.’ 등의 목표를 가졌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목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가 아닌 <실용 경제>나 <윤리와 사상> 또는 <한국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세요.**

##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S |

### 국어, 영어, 수학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경제학부 수업에서 교수님들은 항상 “**경제학적 직관**”과 “**경제학적 논리**”를 강조하십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어떤 경제적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이와 관련한 변수들을 빠르게 찾은 다음 그 변수들을 사용한 그래프나 수식을 이용한 논증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런 경제학적 직관과 논리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꾸준히 공부해야만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학, 국어, 영어 과목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학은 경제학적 논리와 직결되는 과목**입니다. 경제학부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자 과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과학적 방법이란 수학적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와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학 이론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학 전공자에게 있어 수학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인 최적화라는 개념은 경제 주체에게 가장 합리적인 점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최적화 지점을 찾는 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분의 개념이 응용**됩니다.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경제학에서의 모델 분석이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한다면 꼭 미분과 적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기본기를 갖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서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수학Ⅱ>과목은 반드시 선택하여 공부**해야 하고 가능하면 **<미적분>과 <경제수학> 과목까지 이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과목과 영어 과목은 경제학적 직관을 키우는 것과 직결됩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은 **글을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 과목으로 구성된 국어와 영어 교과를 충실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은 ‘경제학적으로 가장 좋은 모델은 수식을 적지 않고도 말로써도 설명이 되는 모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수식이 동반되지 않는 경제학 모델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현실을 단순화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적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적 직관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비롯한 두꺼운 경제학 교과서들을 읽고 대학 4년 동안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기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전공필수과목 중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과목에서는 우리말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과목은 영어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사’는 한글 논문과 영어 논문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즉 수식과 그래프를 완전히 이해하고 경제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어와 영어 교과**는 중요합니다.

## 공부할 것이 다양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주전공으로 그리고 복수전공은 **경영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언론정보학에서는 당연히 신문과 방송을 어떻게 잘 만들지 공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주제를 공부합니다.** 언론정보학의 영문명은 'Department of Communications'이고, **‘소통’과 관련된 주제를 공부합니다.** 신문이나 방송도 소통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야지만 친구 사이의 대화처럼 개인적인 수준의 소통, 집단 간의 소통,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소통 등 **다양한 소통의 형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정보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역량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관심사에 대해서 여러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여러 각도에서 했던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언론정보학에서는 ‘소통’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경영학에서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 수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지, 그 질문이 왜 필요한지, 어떤 답변이 적절한지, 그 답변은 왜 적절한지 고민하는,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의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토론 중심의 수업을** 이수하며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편성된 <국어>나 <영미 문학 읽기>뿐만 아니라 <논술>이나 <사회문제 탐구>를 공부하면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언론정보학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통을 연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과목이 광범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은 국어 교과군 모두, 외국어 교과군 모두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를 좁히자면 **자신이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따라 과목 선택을 달리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통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매체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언어와 매체>를, 메시지의 구성이나 맥락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화법과 작문>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소통의 내용을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가 국민과 나누는 소통이나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활동처럼 정치 분야에서의 소통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정치와 법>을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언론정보학은 다른 학문보다 비교적 최근에 발달했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접하는 자료 중 한국보다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둔다면 언론정보학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함이 있을 것입니다.

## 물리학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 꼼꼼하게!

물리·천문학부라는 학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실제 학문으로서의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리학 I>, <물리학 II>을 **충실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학 I>은 물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성적인 내용 위주로 담고 있다면, <물리학 II>는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 II> 과목까지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물리학 II>는 <물리학 I>에 비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육과정과 그 내용이 많이 인접해 있어서 대학 진학 후에 공부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못지않게 수학적 개념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학은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라는 말이 있듯이, 거의 모든 물리학이 수학을 사용하여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적분학은 자연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고전역학을 기술하기 위해 탄생했을 정도로 수학과 물리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적분학에 대한 개념과 응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고전역학을 비롯한 전자기학, 양자역학 등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하학은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과 여러 공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직교좌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좌표계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좌표계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신기한 물리적인 현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실하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미적분>, <기하> 등의 과목을 두루 공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과목에 대한 중요성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영어는 수학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을 이해하는 언어로써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로 찾는 자료도 모두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전공 분야 텍스트 대다수가 영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물리학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영어 사용능력은 물리학 공부의 기회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대학에서는 전공 수업 이외에도 해외 연구소 인턴십이나 캠프에 참가해 공부할 기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물리학과 수학을 잘하더라도 영어 때문에 참가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 관련 과목만큼 영어를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 |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H | 어서와 지구과학은 처음이지?

저는 현재 대기과학을 주전공으로 공부하며 물리학과 수학을 부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구과학은 자연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이지만 수학, 물리, 화학과는 달리 '순수과학'이라기 보다는 '응용과학'에 가깝고, 대부분 각 분야를 열어보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응용수학이 혼합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접하는 고등학교 지구과학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학교에서 지구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탄탄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탄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교과와 수학 교과와 모든 부분에 대해 전부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그 개념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응용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장차 대학에서 '과학'을 '논리적'인 학문으로 배우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지구과학 내에서도 분야에 따라서는 대학교 수준의 수학뿐 아니라 대학원 혹은 이제 막 연구되고 있는 수학 이론들을 사용해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고등학교 때 미리 배울 필요는 전혀 없지만 대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배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라는 단계에서부터 수학을 잘 공부해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수학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적 세계를 추상화해서 추상개념의 논리로 전개하는 응용을 시도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 교과에서 단순히 계산만 숙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리와 그 개념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배운 수학으로 세상을 풀이해 보는 고민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이후에 대학에서 ‘과학을 위한 수학’을 공부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 중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Ⅰ 수준 과목은 이후 대학교라는 공부의 연장선에 서 보았을 때는 ‘모든 과학 분야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어공부’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어공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말할 한 이유는 과학 Ⅰ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이 이를 배우는 학생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결국 우리는 대학교에서 저 분야들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대학에서 접하는 과학 분야 공부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Ⅰ 과목들은 비교적 교과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아서 공부하는 학생 스스로 잘 이해했다는 느낌을 지니게 합니다만 주의할 점은 과학 Ⅰ을 읽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Ⅰ에서 다루는 내용과 개념을 전부 바르게 익히되 각 내용과 개념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하며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각 교재에서 제시하는 설명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조사해 보며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학 Ⅱ 과목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맛보기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학 Ⅱ도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개념을 익히는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 마찬가지로 과학 Ⅰ처럼 논리적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수학을 사용해 논리를 전개하는 대학에서 배우는 과학과도 차이가 있어서 과학 Ⅰ과 같은 이유로 **과학 Ⅱ에 제시된 내용도 공부하다 보면 생략되어 있거나 불완전하게 설명되어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 Ⅱ만 공부해서는 그곳에 적합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착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답답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선생님을 통해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고 다른 교재를 찾아보며 어떻게든 만족할 때까지 공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답답함을 느껴야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건강한 욕망이 생길 터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학교에 오면 처음부터 새로 벽돌을 쌓아가듯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Ⅱ>를 최우선으로 공부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오히려 **과학 교과 전반에서 익히는 기본적인 개념을 탄탄히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와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다시금 제대로 공부해야만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다른 Ⅱ 수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구과학이란 학문 분야가 가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을 <지구과학>만이 아니라 <물리학>, <화학>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 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건 학생의 몫이 될 것 같지만 결국 과학 Ⅱ도 대학교 과학의 ‘단어공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한 많은 분야를 접하면서 각 내용을 최대한 깊이 곱씹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튼튼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학과 물리학 교과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기계항공공학부에서는 1학년 때 필수로 물리학과 수학 수업을 각각 두 학기 동안 수강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2학년 때부터 전공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에서 막아버리면 다음 내용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는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적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계산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적분이 공식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가 많아서 교재의 답지를 보면 적분 과정이 ‘적분식=답’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적분 과정이 제시되어 있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적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내용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기초를 쌓으려면 적어도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꼭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교에서 배우는 <수학>부터 <미적분>까지는 내용 대부분을 대학교 때 심화 수준의 내용으로 다루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전공 수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험 데이터를 정리할 때 간접적으로 이용됩니다. 특히 <기하>는 꼭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서는 벡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항공공학부는 2학년 때 4대 역학(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을 필수로 배우고 그 뒤에는 각자 본인이 더 배우고 싶은 분야의 심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역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다루는 ‘힘과 운동’, ‘열과 에너지’ 영역을 깊이 공부해야** 하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 $F=ma$ ’ 공식을 계산하기 위한 외력의 합  $F$ 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총 얼마인지를 알아야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작용하는지 구하는 것은 대학교 수업에서도 꾸준히 다루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지 않고 대부분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꾸준히 연습하면 대학교 때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과학>, <물리학 I>, <물리학 II>는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물리학 II>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물리 강의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설되기 때문에 <물리학 II>를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수학을 중심으로 필요한 과목을 준비해 봅시다

산업공학과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정보,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학문으로 학부에서는 이를 위한 산업공학적 사고의 틀과 문제해결 도구를 배웁니다. 이때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들이 **수학, 통계학, 프로그래밍**이고 1학년 때부터 ‘미적분학’, ‘통계학’, ‘컴퓨터의 개념과 실습’ 등의 교양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목들이 **산업공학과를 지망하는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재학 중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프로그래밍은 언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꼭 한번 접해 보았으면 합니다**. 산업공학이 컴퓨터공학은 아니지만, 간혹 ‘컴퓨터공학과를 진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과 수업을 들을 때 많이 활용합니다. 우선 첫 학기부터 ‘컴퓨터의 개념과 실습’이라는 필수교양 과목을 통해 JAVA라는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전공과목에서 프로그래밍을 활용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다루는 경우조차 거의 없어서 이때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이후로도 계속 프로그래밍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분야의 과목만 듣고자 하더라도 애초에 그런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영문과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 영어를 모르고는 제대로 읽을 수 없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공학의 언어입니다**. 산업공학에서 다루는 것은 시스템의 개선이지만 이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그래서 최적의 답은 무엇인지 도출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고를 졸업한 공대 새내기였던 저에게 **프로그래밍은 가장 높은 벽**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오히려 학업을 위해 컴퓨터와의 접촉을 최소화했고 산업공학과를 지망하면서도 프로그래밍이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해 대학에 입학해서야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했습니다. 만약 프로그래밍을 접한 경험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았더라도 ‘컴퓨터의 개념과 실습’을 조금 더 수월하게 수강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후 학업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남습니다.

다만 각 과목이 목적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는 만큼 파이썬, 자바, C++ 같은 기본 언어이기만 하다면 **특정한 언어를 고등학교 때 미리 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 학기에 각 과목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각각 다를 때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배웠던 ‘데이터관리와 분석(DB)’, 선형계획 등 최적화 문제의 풀이를 배우는 ‘경영과학(OR)’,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대한 수업이었던 ‘데이터마이닝’, 재고와 생산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생산관리’, 선형대수학과 미분방정식 등을 배우는 ‘산업경영수리기법’ 이렇게 5과목을 한 학기에 수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과제를 하면서 구글에 모르는 것을 검색하기도 하고 서로 물어가며 알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을 짜서 그것을 pseudo-code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지 어떤 언어의 문법을 완벽히 활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공학과에 가려면 파이썬을 공부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문법을 외우는 것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학 과목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교생 여러분이 이수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교과목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학교 밖에서 별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학교에서 <정보>를 이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래밍은 단지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는 수단이므로 **‘산업공학=프로그래밍’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공학, 생산관리, 경영과학, 데이터마이닝 등 워낙 산업공학이 다루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학이라는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수리적인 지식이 단연코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주어지거나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수리적 모형을 세우게 되고 이는 선형대수, 미적분, 해석학, 확률 이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도구들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산업공학 과가 공대 속의 경영학과라고 많이 불리지만 배우는 내용은 이처럼 **수학적 엄밀함을 추구**하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가 공대임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산업공학과는 **경제와 경영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제성공학’이라는 과목의 경우 이자 계산, 비용편익(B/C)분석 등을 배우며, ‘금융공학개론’은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선물 옵션에 대해 배웁니다. 또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여러 개념 중 산업공학에서 쓰는 수리적 모델을 이용한 것들이 많고, 머신러닝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니 관련 과목인 **<경제>, <실용 경제>나 <경제 수학>**을 공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 |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K |

지방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저는 기하과목을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과목 선택을 하더라도 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학생들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저는 <기하>, <고급수학 I>, <고급물리학>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였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한 학교에서 개설된 소수 과목을 타 학교학생도 수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면서 탐구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은 큰 소득이었습니다. 고급수학 I 을 수강하면서 배운 행렬개념이나 극방정식 등의 개념을 활용해 극좌표계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케플러법칙을 극좌표에서 증명해보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단순히 과목을 하나 더 듣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탐구의 폭을 넓히고 흥미를 높여줌으로써 보다 풍부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수업이 개설이 되지 않았을 때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P |

3학년 때, 저의 고등학교에서 이공계에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은 <생활과 과학>, <응용프로그래밍> 중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듣길 희망하는 과목은 응용프로그래밍 교과목이었지만, 인원수가 적어 1등급 인원수가 단 한 명밖에 안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처음 수강인원과 1등급 비율을 듣고 큰 걱정을 했지만, 그 걱정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수업은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웠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방식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매시간 주어지는 과제를 해결하고, 산출물을 제작하는 것이었고, 스스로 고민하고 과제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여태껏 배워 온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시 응용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래밍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한 대로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응용프로그래밍 수업을 토대로 동아리활동에서도 제가 만들고 싶은 산출물을 직접 제작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자신이 관심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교과목이나 분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H |

<사회과제연구> 과목을 수강했기에 제가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과제연구 수업은 여러모로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2학년 사회과 심화 과목으로 사회과제연구와 세계문제를 다루는 수업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회과제연구는 학생이 직접 탐구주제를 정해 한 학기 동안 탐구를 한 후 보고서를 쓰는 연구수업이라 들었고, 반면 세계문제 수업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강의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회문제와 이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탐구해보는 점에서 사회과제연구 수업이 무척이나 기대됐고 사회과제연구 수업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문제 수업이 수강인원이 많았기에 그 수업을 수강하면 높은 확률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게 분명했습니다. **무난하게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 몸도 마음도 편하겠지만 수동적인 학생으로 머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사회과제연구 수업은 1학과 2학기 각각 주제가 조금씩 달랐는데, 1학기 때는 ‘우리 지역의 문화’가 큰 주제였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신분해방운동을 소주제로 정해 2학년 1학기 동안 연구했습니다.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뒤에도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백정 계층이 일으킨 대규모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평등을 울부짖는 백정들의 목소리를 한국사자료집과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등을 발굴하며 생생히 느낄 수 있었으며, 운동의 취지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친구들의 자료와 함께 엮어 지역문화 홍보집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빛나는 역사와 뜨거운 마음을 손수 만든 자료로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 복지권과 교육권 같이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편한 수업보다는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을 택하길 추천합니다.** 성적이 낮게 나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엔 공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을 때 늘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회과제연구 수업은 저에게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재학 중인 학과로 인도해 준 고마운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도 이 과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 | 자유전공학부 P |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될 때 차선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와 법>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적으로 정치학과 관련된 과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로 없어서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은 학문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원리와 배경지식 또는 탐구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에 관한 주제들은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다양한 요인과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 분야와 다른 분야가 겹치고 연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시로 “민주주의는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윤리와 사상> 과목이나 <고전과 윤리> 과목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와 사회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문화>에서 근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세계사>나 <한국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학생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어서문학 전공을 하면서도 세계사에서 배운 지식이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문학이 당대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응용력을 기를 수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방법으로 창의적인 문제 접근 또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 간호대학 S |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고등학생 때 <생명과학>과 <화학>을 배우지 못하니까 간호학과는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와 경우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생명과학>과 <화학>을 필수교양으로 배우며 이론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다만, 고등학생 때는 3년 동안 천천히 배우는 과정을 대학교에서는 1년 안에 다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보다는 스스로 더 찾아서 공부해야 하죠.

이처럼 고등학생 때 <생명과학>과 <화학>을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였더라도 충분히 간호학과와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인문계열 친구들과 자연계열 친구들의 학업 이해도나 성취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친밀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생명과학>과 <화학>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관련 내용이 나오면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생명과학>과 <화학>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혼자서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낸 책을 읽거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며 과학과 친해져 보세요. 굳이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면역, 유전, 호르몬, 바이러스, 질병, 감염, 항생제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건강과 간호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접하면서 **생명과학과 화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보세요.** 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면서 나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간호학을 위한 기초 과목들을 쑥쑥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 |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K |

저는 이수를 못 한 건 아니었지만 <물리학 II> 과목의 희망자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그냥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방식으로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대학에서 우주항공공학을 전공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II> 과목을 꼭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저는 우선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인터넷 강의의 특성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리 끝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삼삼오오 모아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갖춘 상태에서 물리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문제 하나를 정해놓고 친구들끼리 서로의 풀이 방식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모르는 문제는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학교 물리 선생님께 여쭙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아간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부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만 지식이 전달되는 인터넷 강의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대학에서 수학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이해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수업을 이수할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과정 역시도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장 좋은 공부법은 역시 읽고 쓰는 것!

### | 인문대학 철학과 P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철학>, <논리학>, <종교학>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더라도 이런 과목들을 원활하게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학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미리 알아보고 고등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고교 재학 중 교육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공 지식은 어차피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테니 공부하기 위한 기초와 다양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학문도 그렇겠지만 특히 철학은 그 특성상 어떤 경험과 지식도 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자신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도 철학 분야와 관련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고 싶다면 역시 **관련 분야 독서가 가장 좋습니다**. 독서를 통해 철학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내가 철학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탐구하되 **철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권장**합니다. 철학 전문 서적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혼자 읽기는 어렵기도 하고 오독의 가능성도 있는 데다 어차피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이니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회, 역사, 과학, 예체능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배경지식을 많이 쌓아 주세요**. 철학과에 진학한다면 **높은 확률로 평생 철학 공부를 하게 되니 대학 진학 전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두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철학적 탐구와 자연과학적 탐구의 방법이 많이 겹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 또한 철학 공부에 많이 응용됩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면 <물리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과학 교양서를 많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의 세부 분야 중 과학철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꼭 과학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탐구 분야는 시간, 공간, 물질 등으로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과학 외의 어떤 분야라도 이런 식으로 철학과 관련이 있으니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지닌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S |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려면 고등학교에서 경제 수업을 듣거나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응시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을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수학>, <경제>, <실용경제> 등 경제학을 맞볼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과목을 수강한다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과목은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교과인 수학, 국어, 영어 실력**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경제 관련 과목이라고는 고등학교 1학년 이수한 <사회·문화>를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첫 학기 이수 과목인 ‘경제원론’을 수강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쌓은 실력이 탄탄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제학을 전공할 수 있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그 사람이 읽은 책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독서는 인간의 성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제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개론서나 대중 서적 그 무엇이라도 선택하여 읽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너무 전문적인 경제학 서적을 억지로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대졸자들도 읽기 어려운 책을 고교 때 선택하여 읽는 것은 경제학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문 읽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아무리 바빠도 신문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하던 신문 읽기가 습관이 되니 재밌어졌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신문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 구독을 4년간 꾸준히 하였고 흥미 있는 부분은 스크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경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이나 주간지를 읽기를 권장**합니다.

#### |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K |

자기에게 필요한 과목을 꼭 학교에서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요성을 강조한 <물리학 II>도 대다수 학교에서 개설조차 되지 않거나 배우다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책과 웹을 통해 메꾸고자 했습니다. 특히 **독서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시작점을 파악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사를 다룬 책을 읽으면서 행성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 고대의 그리스 과학자에서부터 케플러와 뉴턴을 거쳐 아인슈타인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어떻게 변화하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특정한 책이 아니더라도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조차도 나름의 흐름에 따라 잘 설명된 자료가 많으므로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각각의 자세한 내용을 모두 알아낼 수 있지 못하므로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의문점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의문점을 해소해 줄 다른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며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책을 완독하는 것보다 여러 정보를 조합해서 최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만약 케플러의 타원 궤도 법칙이 흥미롭다면, 이 법칙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한 뉴턴의 프린키피아도 읽어보고, 당시 관측 자료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비선형적인 정보는 물리학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해진 교육과정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궁금한 분야를 파고들면서 하나씩 얻은 지식을 모아 스스로 정리했을 때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 공부는 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 |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K |

선생님은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만 선생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더라도 스스로 공부하면 됩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공부할 때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늘 마주하는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와 문제집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시험도 없고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도 없으니 공부할 동력이 사라지곤 합니다. 둘째, 대학에 지원할 때 내가 이 과목을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재미있게,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성취해 가며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므로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스스로 알아간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서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누리집에 들락거리며 혼자만의 공부를 하고는 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문법이나 작문 과목을 충분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 문제집으로 배우다 보면 지엽적인 내용에 매몰되기 쉬우니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 이곳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어문 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창구도 있습니다. 누리집은 물론 SNS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어서 ‘내 손 안의 국어 선생님’인 셈입니다. 혼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생길 때, 친구들과 메시지를 하다가 맞춤법이 헛갈릴 때, 자주 방문하다 보면 자연스레 국어 공부를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외에도 <정치와 법>을 실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사이트, ‘한국지리’ 정보로 가득한 ‘국토지리정보원’ 등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우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웹을 통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 | 자유전공학부 H |

저도 책 이외에 미디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대학에 온 뒤로 알게 된 것이라 고등학교 시절에 사용하지는 못했는데 ‘K-MOOC’라는 인터넷 강좌를 권해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MOOC는 미국 대학교 강좌를 일반 대중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한국형 MOOC로 ‘K-MOOC’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내의 다양한 대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서울대학교가 제공하는 ‘SNUON’과 ‘TED’ 등 대중 강의도 고등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디어 자료로 공부할 때에도 항상 배운 것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자율적인 동아리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런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직접 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들었는데 뜻이 맞는 친구들과 책, 미디어, 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인 공부를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C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학 진학 후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 순간은 많지만 배울 기회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알고고 이후 코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덕분에 시중에 프로그래밍 책이 늘어났고 무료 인터넷 강의도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책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블로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이론과 문법은 이를 활용한다면 스스로 학습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영어를 익숙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말해봐야 하듯 결국 혼자 컴퓨터와 씨름하고 모르는 내용을 구글에 코드를 검색해가면서 “StackOverflow”같은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며 연습을 많이 해본다면 실력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코드는 이미 누군가가 어려워한 적이 있기에 구글에 이미 그 해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인터넷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잘 짠 코드를 보고 따라해 보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하여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모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학이 개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지원하여 기회를 얻는다면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기에 설령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K-MOOC’, ‘SNUON’을 통해 교수님들의 실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H |

첫째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스스로 공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표현을 조금 바꾸자면 스스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글을 통해 저자와 소통하는 능력’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글과 글을 읽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사실 스스로 또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듣는 것을 통해서 거의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수업을 찾아 들어도 대부분 수업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받아들이는 것만을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글은 스스로 다가오는 정보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입니다. 학교의 수업은 대부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도를 나아가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 각자의 사고 속도와 흐름에 맞추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은 우리 마음대로 반복해서 읽을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꼭 읽어야 하는 페이지 수의 제약이 없으므로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 정보를 습득하는 법, 즉 글과 ‘씨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글을 통해 우리의 사고 속도, 사유의 방식에 맞추어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고 고민하고 의심하며 읽을 때 비로소 이해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좋은 글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자 글을 붙잡고 씨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 글이 제대로 쓰인 ‘좋은 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능숙한 독서능력을 지닌 사람도 간혹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글에 있다.’라는 말은 충분한 배경지식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독자로 전제하여 쓰인 어려운 글이거나 반대로 너무 쉽고 간략하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는 불친절한 책입니다. 이런 책을 만나게 되면 몇 주를 고생하며 읽어도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말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간혹 교과서의 설명 중 내용을 더 자세히 안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략한다.’라는 표현을 만나면 간혹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 만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른 책들을 찾아보며 각각의 책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고등학교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그 모든 내용을 수업에서 겨우 1시간 남짓의 시간 안에 제시되는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다양한 자료들을 스스로 찾아보며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첫 제안자는 어떤 맥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지’ 등을 다른 책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고등학교에서 연습해 보는 기회는 ‘주제 탐구’ 관련 과목이나 프로그램에서 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시간이나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중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교과서의 설명이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는 주제가 있다면 직접 도서관에 가서 관련 분야의 책을 죄다 꺼내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나름의 도전을 통해 익힌 지식을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수업 이외의 자료)을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 읽게 되면서 더 넓은 정보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렵잖게라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가능성은 정말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공부할 때마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더 제대로 된 이해를 향해 다가가기 위한 핵심이므로 학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책 속에 담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 순서는 역시 그 진리라는 것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심하고 면밀하게 대상을 뜯어보기보다 책의 말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지고 결국 나중에는 무엇을 모르는지와 무엇을 아는지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져 버립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은 언제나 공부의 원동력이 되고 더 나아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면 그것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지금 있는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다 보면 시험 준비는 기본이고 과제도 많이 겹칠 때가 다반사여서 모르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 주제를 해결할 때까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고등학교 때는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보다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취급되는 환경이었으니 여러분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고교 재학 시절이나 지금이나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동일하게 쓰는 방법은 공부하며 떠오른 질문이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수첩이나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특히 의문을 갖게 된 이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예상되는 답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상세히 써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놓아야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랐던 부분에 대해 찾아보게 되고 그 과정이 메모한 내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고교 시절 앞으로 내가 공부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어쩌면 이곳 관악에서 공부를 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배경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꾸준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실력을 쌓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말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 |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A |

저는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수행하는 학업은 고등학교 때의 공부와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대학은 오로지 학업만을 위한 환경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경험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이며 전공 분야의 학업 역시 고교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게 파고들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입'이라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주어진 고등학교 생활과는 달리 예측이 어려운 미래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신의 진로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공부는 끊임없이 스스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단지 시험만을 목표로 하는 즉 대학의 교재에 국한된 공부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대학에서 치르는 시험만 하더라도 단순히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시험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이해도를 확인하는 시험 외에도 오픈북(open-book)시험은 물론 시험 문제를 집에 가져가 일정 기간 안에 풀어서 제출하는 시험(take home exam)을 보기도 하며 리포트나 발표로 시험을 대체하기도 합니

다. 즉 배운 내용의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더욱 확장된 사고를 하는 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태도는 대학 수학에 가장 기본입니다. 스스로 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파악하여 더욱 깊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학은 고등학교와 달리 세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돕는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학원은 더더욱 거리가 먼 이야기이고요. 부모님 역시도 고교 때와는 사뭇 다르게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능동성은 대학에 와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자신의 모습이 다소 소극적이라면 조금씩 바꾸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 “왜”라는 질문을 항상 곁에 두세요”

### | 간호대학 S |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배우게 됩니다. 세세한 사항들을 알려주던 고등학교의 수업 방식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큰 줄기의 흐름만 수업을 통해 배우고 나머지 가지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처음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양에 놀랐고 그저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있는 그대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공부는 파상적으로 그 학문의 흐름 정도만 알 수 있었을 뿐 배운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은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하므로 책에 적힌 글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본다면 그냥 외우면 될 것을 저렇게 공부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 내용이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수행하는 공부의 본질은 지금까지의 학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학문을 통해 나의 식견을 넓히고 나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항상 생각하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나만의 생각을 쌓아야 합니다.

많은 양에도 겁먹지 않고 즐기면서 학문을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대학에 입학한다고 뿔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죠? 단순히 주어진 음식을 먹기만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음식을 자세히 본다고 어떤 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요리되었는지 절대 한 번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내게 주어진 요리가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방식으로 요리되었는지 고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 피타고라스법칙에서  $a^2+b^2=c^2$ 이 성립하는지 고민하고, 당뇨병환자에게 왜 ‘다음, 다뇨, 다식’의 증상이 생기는지 고민하는 것 모두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라는 단어를 항상 떠올리며 주어진 것 그대로가 아닌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대학에서 학문을 진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되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 안에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안내합니다. 학생 여러분이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현재 고교 2학년 학생(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 핵심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단위는 학생의 진로·적성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권장함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인문 대학	인문계열		-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역사학부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부		-	-
	경제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사회학과		-	-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연 과학 대학	수리과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통계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천문학전공	지구과학Ⅰ, 미적분, 기하	지구과학Ⅱ, 물리학Ⅱ, 확률과 통계
	화학부		화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명과학부		생명과학Ⅱ, 미적분	화학Ⅱ, 확률과 통계, 기하
	지구환경과학부		물리학Ⅱ 또는 화학Ⅱ 또는 지구과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간호대학			-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경영대학			-	-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공과 대학	광역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건설환경공학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기계공학부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재료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 II, 화학 II, 확률과 통계
	전기·정보공학부		물리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컴퓨터공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
	화학생명공학부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화학 II 또는 생명과학 II
	건축학과		-	미적분
	산업공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에너지자원공학과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원자핵공학과		물리학 II, 미적분	-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물리학 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항공우주공학과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지구과학 II, 확률과 통계
	농경제사회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식물생산과학부		생명과학 II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산림과학부		-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화학 II, 생명과학 II	-
	응용생물화학부		화학 I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미술 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 II, 확률과 통계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 II 또는 화학 II
	동양학과		-	-
	서양학과			
	조소과			
사범 대학	공예과			
	디자인과			
	교육학과		-	-
	국어교육과		-	-
	영어교육과		-	-
	독어교육과		-	-
	불어교육과		-	-
	사회교육과		-	-
	역사교육과		-	-
	지리교육과		-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윤리교육과		-	-
	수학교육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교육과		물리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화학교육과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물교육과		생명과학 II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지구과학교육과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활 과학 대학	체육교육과		-	-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	-
		아동가족학전공	-	-
	식품영양학과		화학 II, 생명과학 II	-
수의과대학	의류학과		-	화학 II, 생명과학 II 또는 확률과 통계
	수의예과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약학대학	약학계열		화학 I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음악 대학	성악과		-	-
	작곡과	작곡전공		
		이론전공		
	기악과	피아노전공		
		현악전공		
의과대학	관악전공			
	의예과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자유전공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치의학 대학원	치의학과		-	-



# VI.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장해온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별한 재능과 활동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평가는 학교 안에서 꾸준한 성취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둠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서울대학교의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Q. 수시 모집에서 서류평가 방법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I 이 있습니다. 이 세 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이 서류 외에 평가에 반영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세 전형의 차이점은 지원 자격에 있으며, 서류평가 방법과 기준은 같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여러 개의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두 가지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도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 혹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 I 등에 함께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개 전형의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가능한 지원 시점 이전까지 고른 교과목을 이수하여 고른 학업소양을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Q.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지원자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야 하나요?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 2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전형별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에 따라 수시모집만 실시하거나 일부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Q. 서류평가에서는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재 내용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Q.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정해진 모습은 없습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인원으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으로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  
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성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 수치만 고려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학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의 성적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Q.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Q. 수시모집에 지원하는데  
반드시 수능을 응시해야  
하나요?**

— 지역균형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중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때 서울대학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모집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단순 정답,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교과 지식과 기본개념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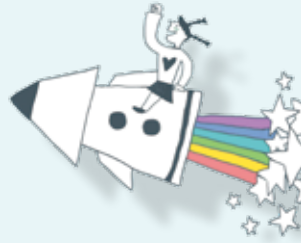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알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연습은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독서, 글쓰기, 토론, 발표,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 III 면접은 제출서류를 내용을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면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웹진「아로리」에는 기출 제시문과 면접 우수자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아로리 사용 설명서

「아로리」- 입학본부 웹진(<http://snuarori.snu.ac.kr>)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서울대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웹진입니다. '아로리'란 말의 뜻이 친구, 지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친근하고 손쉽게 아로리를 이용하여 입학정보, 대학생활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교 생활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고등학교 생활담과 현재 대학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작성한 도서목록을 공개합니다. 모집단위별로 나누어 정리되어있으니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어떤 책을 많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이슈이슈!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이야기와 우리 교육계의 쟁점 사안에 대한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입학 안내	전형안내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입학사정관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모집단위에 지원했던 선배들의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생들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	서울대학교 면접 우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창고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자료와 입학본부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서울대학교의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 소개	서울대학교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메뉴입니다. 전공소개 동영상을 통해 생생한 전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전공, 나의 진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 엿보기	예비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교통, 기숙사, 동아리, 장학금, 도서관 이용법, 식당, 학생증 등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 VERITAS LUX M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전화 \_ **02.880.5022 / 02.880.6974~6**

팩스 \_ **02.873.5021**

※ 이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